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소서"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가정 성화 주간) 2020년 12월 27일(제461호)

본당 주소: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전화) 925-600-0177 / (FAX) 925-237-8423
사무실 e-mail: office@tvkcc.org, 웹사이트: www.tvkcc.org

주일 / 평일미사: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온라인 미사: 유튜브에서 'TVKCC mass' 검색

주일학교	온라인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아: 온라인
	성령기도회: 온라인
	울뜨레야: 온라인
	향심 기도회: 온라인
성시간	일시 중단

미 사	교중미사	오전 9시 - 10시
	평일미사	화, 목, 토요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Temporarily suspended
	Youth Mass	Temporarily suspended
고해성사	교중미사 전: 오전 8시 30분 - 8시 50분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0분	
유아세례	일시 중단	

해설_손영채(아네스) 제1독서_김지용(예로니모) 제2독서_김지용(예로니모)

입 당 송 | 루카 2,16 참조

목자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았네.

제1독서 | 집회 3,2-6.12-14<또는 창세 15,1-6; 21,1-3>
Sirach 3:2-6, 12-14

화 답 송 | 시편 128(127),1-2.3.4-5(◎) 1)
Psalms 128:1-2, 3, 4-5

-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 ◎ Blessed are those who fear the Lord and walk in his ways.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여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Blessed is everyone who fears the LORD, who walks in his ways! For you shall eat the fruit of your handiwork; blessed shall you be, and favored..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밭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Your wife shall be like a fruitful vine in the recesses of your

- home; your children like olive plants around your table.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 Behold, thus is the man blessed who fears the LORD. The LORD bless you from Zion: may you see the prosperity of Jerusalem all the days of your life. ◎

제2독서 | 콜로 3,12-21<또는 히브 11,8.11-12.17-19>
Colossians 3:12-21

복음환호송 | 콜로 3,15.16

- ◎ 알렐루야.
- ◎ Alleluia, alleluia.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 Let the peace of Christ control your hearts;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

복 음 | 루카 2,22-40<또는 2,22.39-40> Luke 2:22-40

영성체송 | 바룩 3,38 참조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행복하여 라 주님을경외하 는 사람 그분의길 - 을 걸-는 모든 사-람

“새로 나오신 신자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앓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요청

윤창섭 안드레아, 이한아 안나, Teresa Lee, 김종택, Yong Ah Lee, 이잠수, 최영숙 마리아, 김필순 루시아,
고은경 엘리사벳, 이순옥 안나, 윤정의 알퐁소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학 중에 종종 고향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내던 형제자매들, 동네 뒤편에 자리 잡고 있던 산자락, 학창 시절의 방향과 꿈이 깃들어 있는 비좁은 골목, 어머니께서 지어주셨던 따뜻한 밥.... 그때는 그토록 지겹고 싫었던 것들까지 지금의 저 자신을 만들어준 소중한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저는 이 모든 기억에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여봅니다.

이번 주일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교회는 예수 성탄 대축일 다음에 오는 주일을 성가정 축일로 기념하며, 그 주간을 가정 성화 주간으로 지냅니다. 나자렛 성가정의 모범을 따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랑과 일치와 친교의 가정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해 봐야 할 화두입니다.

한편 현대의 가정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1인 1가구 가정 등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국면에서 그리스도인은 가정공동체의 의미를 어떻게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일 복음 말씀(루카 2,22-40)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봅니다.

율법에 따라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기 위해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렀을 때, 예언자 시메온과 한나를 만나 펼쳐지는 상황이 복음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시메온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로 구세주를 직접 뵈기 전에 눈을 감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말씀을 믿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받아 안으며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

이 드러날 것입니다."(루카 2,34-35)라는 예언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시메온의 예언을 들은 마리아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또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나자렛 성가정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시메온의 예언을 들은 것만으로도 근심 걱정이 전혀 없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자렛 성가정은 세상 기준에 따라 '완벽한' 가정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자렛 성가정이 사랑과 일치와 친교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참다운 의미의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말하지 않아도 먼저 이해해 주며, 있는 그대로의 못난 모습까지 안아주기에 '가족'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고 상처가 되며 심지어 원수까지 되어 버리는 구체적 현실 속에서도, 가정공동체의 화해와 용서를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속해있는 가정공동체의 구성원들 가운데 화해와 용서가 필요한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며 짧은 화살기도를 바쳐보시기를 청합니다.

김상우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p>김수정 Realtor®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julia.kim@kw.com kw</p>	<p>MassMutual 건강보험, 생명보험, IRA 연금(Retirement Account) 장기 간호보험 401(k) Ropcover 어 세실리아 925-642-0756</p>	<p>KOREAN B.B.Q 영동 순두부 7268 San Ramon Rd. Dublin, CA 94568 925-551-0825</p> 	<p>Tri-Valley Orthodontics Jesse H. Ko DMD / Anne Yoon DDS 111 Deerwood Rd. Ste. 185 San Ramon, CA 94583 ph. 925-272-7868 www.tri-ortho.com</p>
<p>STEVE G KIM DDS Family &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p>혁신적인 항노화 제품과 훌륭한 사업기회 민주란 아우레아 253-468-3030 jooranmin@gmail.com</p>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 박사 이준 침, 안약, 체중조절, 통증조절, 체질감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p>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 신세계 여행사 SHINSEGAE TRAVEL 510-688-0155 이 베로니카 510-688-0157 이 레이몬드</p>



5분 묵상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에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문이 돌아 이곳의 목동 네 명이 아기 예수님을 보러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목동은 달걀, 두 번째 목동은 빵과 치즈, 세 번째 목동은 포도주를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목동은 빈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네 번째 목동을 앙상떼(L'Enchanté)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마음을 빼앗겼다.', '매혹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앞의 세 목동은 '마리아가 아름답다.', '마구간이 참 아늑하다', '요셉이 이곳을 잘 골랐다.', '별빛이 아름다운 밤이다.' 하면서 마리아 부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축하하고 선물을 건네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앙상떼는 어디 간 거지?" 그들은 이곳저곳, 안과 밖을 찾아보다 바람막이로 쳐놓은 담요를 살짝 젖히고 구유가 있는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구유 앞에는 앙상떼, 곧 예수님에게 매혹당한 자, 마음을 빼앗긴 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가리키는 깃발이나 불꽃처럼 그는 사랑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내내 그렇게 경배하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들은 대림시기를 지내며 주님의 탄생을 기다려왔고 또 그 주님의 탄생을 기쁜 마음으로 경축하였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탄축일과 그 기쁨을 나누는 성탄시기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신비요 사

람입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어두움은 빛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을 몽땅 내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탄을 기뻐한다는 말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며 용서함으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기쁨에 들떠 예수님을 잊고 지내는 성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기쁨의 성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굿뉴스에서-

 <p>마이클 엠 부동산 01363182/Legacy REA 주택, 상업용 건물 전문 북가주 전지역 Cell: 925-577-1117 michael.aom@gmail.com</p>	<p>새차 12개 자동차 매장에서 도와 드립니다 HANLEES AUTO GROUP</p>  <p>책성 직통: 510-662-4036 HILLTOP 3233 Auto Plaza 510-243-2020 FREMONT 43690 Auto Mall Cir. 925-640-1004 DAVIS 4202 Chiles Rd. 530-220-2848</p>			<p>PARK CHIROPRACTIC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p> 
 <p>(925)549-2414 1241 Quarry Ln. Ste 110 Pleasanton, CA 94566 www.eecschoo.co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English, Math History, Physics, Chemistry, Bio PSAT, SAT, ACT College Counseling 	<p>CPA 조미정 (카타리나) 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 6500 Dublin Blvd. #206 Dublin CA 9456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p>	<p>광고를 모집합니다.</p> <p>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p>	<p>광고를 모집합니다.</p> <p>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p>	
<p>광고를 모집합니다.</p> <p>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p>	<p>광고를 모집합니다.</p> <p>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p>	<p>광고를 모집합니다.</p> <p>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p>	<p>광고를 모집합니다.</p> <p>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p>	

■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되어오신, 하느님의 사랑 듬뿍 체험하는 복된 성탄 시기 지내시기 바랍니다.
- 기쁜 성탄을 맞기 위해 애써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공동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MERRY CHRISTMAS!

■ 신부님의 영명축일을 축하 드립니다.

- 오늘 영명축일을 맞으신 신부님께 전 신자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 주님께서 영육간 건강을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성탄 및 송년, 신년 기간중 미사 안내

- 12월 31일(목): 송년 미사(저녁 8시), 평일 오전 미사 없습니다
- 1월 1일(금):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오전 9시 30분)
- 1월 2일(토): 평일 미사 없습니다.

■ 성모신심미사 안내

- 매월 첫 토요일 미사는 성모신심미사로 봉헌됩니다.

■ 성탄 판공성사 서두릅시다

- 아직 판공성사를 보시지 못한 교우들께서는 판공성사를 서둘러 주십시오.



박경희 유스티나 수원교구 소하동성당

■ TVKCC 온라인 목주기도 안내

- 아래 날짜에 온라인 목주기도가 없습니다.
- 2021년 1월 1일

■ 온라인 미사참례 헌금 안내

- 직접 미사에 나오시지 못할 경우 주일헌금, 교무금 등 각종 헌금은 당분간 Check을 센터로 우편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www.tvkcc.org/giving-2

■ 온라인 미사예물 봉헌 안내

- 온라인 미사에 미사예물을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봉헌 신청: 전례부 이메일, tvkcccliturg@gmail.com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www.tvkcc.org/prayer_requests

■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영어미사	토요특전				
\$1,130	-	-	\$9,760	\$340	\$410	\$11,640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 김남웅(3-12), 김순삼(12), 김영호(10-12), 김정주(10-12), 남석훈(12), 박주암(12), 배수완(3-12), 이재실(10-12), 이동익(2021 전기간), 이종구(8-12), 이태원(12), 장진환(2021 전기간), 전현규(1-12), 하정희(7-12)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 김영호(10-12), 김정주(10-12), 남석훈(12), 이종구(1-12), 이재실(10-12), 장진환(2021전기간)

- Bishop's Appeal

- 김영호(10-12), 김정주(10-12), 남석훈(12), 이종구(1-12), 이재실(10-12), 이태원(12), 장진환(2021전기간)

- 성전건축 헌금(Building Fund)

- 김수정, 장진환, 홍석제, 성모회

- 구유예물

- 김형근, 익명

◆ 센터 방문 및 미사참례 시 준수 사항

- 자신과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합니다.
- 미사 전 과정(영성체 제외)과 미사 후 마스크 착용합니다.
- 최소 6피트 거리 유지합니다.
- 미사 후 즉시 차에 탑승, 귀가합니다.

◆ 고해성사 시간 및 본당 신부님 면담 안내

- 주일: 오전 8시 30분 - 8시 50분
- 평일(화, 목, 토): 오전 9시 - 9시 20분
- 면담: 신부님께 별도 문의 바랍니다.